

# ‘디딤’... 영·호남 전통춤 결을 잇다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안무자전

전통춤을 이끄는 안무자들이 함께 모여 각 지역의 춤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남도국악원·국립민속국악원·국립부산국악원에서 활동 중인 안무자들이 한 무대에 올라 각 지역 색을 담은 여섯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13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전악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 기획 안무자전 ‘디딤’이다.

교방굿거리·살풀이·진도북춤 등 전남·전북·영남 대표 춤 ‘한자리’

공연에서는 ▲김수악류 진주교방굿거리 ▲이매방류 살풀이춤 ▲진도북춤 ▲강태홍류 산조춤 ▲호남검무 ▲북개춤 등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복미경 예술감독은 경남 진주 지역 교방춤의 흐름을 잇는 ‘김수악류 진주교방굿거리’를 선보인다. 복미경은 국립국악원 단원을 시작으로 국립남도국악원과 국립민속국악원 안무자를 역임했으며, 국가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이자 2018년 KBS 국악대상 무용상 수상자다. 국립민속국악원 안무자 안명주는 삶의 내면을 풀어낸 ‘이매방류 살풀이춤’과 호남 지역의 춤사위를 담은 ‘호남검무’를 무대에 올린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호남산조춤 전수자다.

국립남도국악원 안무자 박기량은 박병천류 ‘진도북춤’과 진도 특유의 장단을 재구성한 ‘진도북춤’, 그리고 진도씻김굿 ‘제석굿’에 등장하는 주술적 춤사위 ‘북개춤’을 군무로 선보인다. 박기량은 국립무용단 단원과 프랑스 국립 크리테유극장 안무가를 지냈으며, 2024년 KBS 국악대상 무용상을 수상했다. 국립부산국악원 안무자 박숙영은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가락 위에 춤사위를 얹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준비했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처용무 이수자이자 대구시립국악단 단원을 역임했으며 2021년 ‘성찰, 소리로 소리를 보다’, 2022-2024년 ‘야류별곡’, 2023-2025년 ‘춤, 조선통신사 유마도를 그리다’, 2025년 ‘선락, 춤바람 분데이’ 등을 안무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남의 진한 삶이 배어 있는 춤, 전북의 기품과 색채를 지닌 춤, 영남의 시원하고 짜임새 있는 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공연으로, 다양한 지역성과 미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최명진 기자



살풀이춤...안명주



진도북춤...박기량



진주교방굿거리춤...복미경

## 재즈 선율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내일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개관 1주년 공연

북한문화예술공간 아트스페이스 흥학관(동구 문화전당로 35번길 16-4)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6시 ‘재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정동 재즈오케스트라가 참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흥학관은 100년 전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하던 공간을 재정비해 지난해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으로 새

롭게 문을 열었다. 과거의 시간을 품고 현재의 예술을 담아 내며,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강연과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흥학관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박수용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를 필



두로 재즈·클래식 분야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정동 재즈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중심으로 뉴욕의 멋진 연회장에서 열리는 송년 파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 〈제39강〉8. 수지비(水地比) 上

역(易)은 변동(變通)의 법칙으로 때가 중요하다. 성인(聖人), 범인(凡人)을 막론하고 역은 때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가르친다. 비(比)의 때에는 비가 가르치는 대로 친비(親比)하게 행하고, 사(師)의 때에는 사의 가르침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좋지만 이에 거스르면 결국 흉하다. 때에 맞는 처신이 인간의 삶의 지혜인 것이다.

지수사(地水師)	수지비(水地比)
상군하수(上軍下水)	상수하군(上水下軍)

역경의 여덟번 째卦는 수지비(水地比)이다. 비괘(比卦)는 지수사괘(易位生卦) 또는 전도생괘(顛倒生卦)한 괘로 사괘를 상대방 입장에서 본 빈괘(賓卦)이다. 사괘(師卦)가 전쟁을 뜻하고 물이 밑에, 땅이 위에 있어서 상하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상인데 반해, 비괘는 친하다는 의미로 땅이 밑에 있고 물이 위에 있어서로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상이다. 사괘는 물이 땅 속에 있어 만물을 윤택하게 할 수 없으나, 비괘는 물이 땅 위에 있어 만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수지비(水地比)	比 吉, 原筮 元永貞 无咎, 不寧方來 後夫凶	卦 象
	比之无首, 凶	衆星拱北之課
	顯比, 王用三軍 失前禽, 邑人不誡 吉	
	外之比, 貞吉	
	比之匪人	
	比之自內, 貞吉	水行地上之象
	有孚比之 无咎, 有孚盈缶 終來有它 吉	和樂無疆之意
지상유수 비, 선왕이건만국친제후(地上有水 比, 先王以建萬國親諸侯)		

수지비괘의 ‘비’(比)자의 형상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으로, 사람이 나란히 같이 있으면 친근하고 화합한다는 의미로서 친비(親比)하고 서로 가깝게 교제한다는 것이다. 나란히 있다고 해서 서로 비교 경쟁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역경에서는 ‘친하다’는 뜻으로 상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괘는 ‘친하다. 도와준다. 서로 화합하고 즐겁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땅 위에 물이 있는 상으로 물이 마땅한 장소를 얻고 있어 괘 또한 자연스런 형태로 수행지상지상(水行地上之象)이라고 할 수 있다.

괘상(卦象)을 살펴보면, 물이 땅 위에 흐르면 금방 스며 들고 물과 땅은 서로 교제하고 사귀면서 서로 친하고 도움

을 주는 비호화친지상(比輔和親之象)이요, 물은 땅의 형상을 따라 흐르니 친밀감을 잃지 않아 화락무격지의(和樂無隔之意)의 모습이다. 구오의 일양(一陽)이 강건중정(剛健中正)의 군호(君文)로서 다섯 개의 음호가 군호와 사귀고 있다. 즉, 구오의 양호 하나가 군주의 위치에서 다섯 음호인 대중을 거느리고 다섯 음호 모두가 복방에 있는 군주인 양호와 음양상응(陰陽相應)하면서 구오를 향하고 있는 중성공복지과(衆星拱北之課)의 모습이다.

사괘는 대중을 통솔해 전쟁을 수행하지만, 비괘는 대중과 함께 친하게 교제하는 상이다. 천수송(天水訟)의 때에 민중이 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심각하게 싸우게 된 것이 지수사(地水師)이며, 이제 무리들이 화해하고 친화하는 것이 수지비(水地比)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것이 송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전쟁(師)을 하기도 하나, 결국은 인간 본래의 성정으로 돌아와 친하게(比) 지내는 것이다.

잡괘전(雜卦傳)에서는 사괘와 비괘는 서로 대조적인 괘로서 ‘비(比)는 즐겁고 사(師)는 근심’이라고 해서 ‘비락사우’(比樂師憂)라고 했다. 비괘는 서로 친하고 도와서 일을 성사해 즐겁고, 사괘는 어려움을 감싸고 근심하는 것이다.

수지비괘(比卦)〈각주=상왕(象曰), 땅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이다. 선대의 군왕은 많은 나라를 세워 제후들과 친밀히 한다(地上有水 比, 先王以建萬國 親諸侯/지상유수 비, 선왕이 건만국 친제후). 비괘는 곤궁삼세로 괘는 칠월에 속한다(坤宮三歲 卦屬七月). 남갑은 乙未, 乙巳, 乙卯, 戊申, 戊戌, 戊子다. 차용은 癸未, 癸巳, 癸卯다. 만약에 칠월 남갑에 생한 자는 공명 부귀인이 된다(如生於七月 急 納甲者 功名富貴人也)〉의 괘사에서는 ‘비길, 원서 원영정 무구, 불녕방래 후부흥’(比 吉, 原筮 元永貞 无咎, 不寧方來 後夫凶)이라 했다. 즉 ‘친한 것은 길하나 서쪽을 들어 물어서 신중하게 시작하고 친함이 오랫동안 참고 바르면 허물이 없다. 친하지 않고 편하지 않는 사람이 바야흐로 오나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은 지아비라도 흉하다’는 의미이다.

괘사의 ‘비길’(比吉)은 ‘친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뜻이고 ‘원서’(原筮)는 ‘아무리 친비가 길하다고 해도 아

## “비 길, 원서 원영정 무구, 불녕방래 후부흥”

무하고나 사귀 수는 없는 것이니 서쪽을 들어 역에 물어 보고 친하라’라는 의미이며, ‘원영정 무구’(元永貞 无咎)라는 것은 ‘오랫동안 예와 분수에 맞게 변함없이 바르게 사귀면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불녕방래 후부흥’(不寧方來 後夫凶)이라는 의미는 ‘친하지 못하고 구오의 강건중정의 군위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늦게 찾아오면 때를 잃어 흉하다’는 것이다. 구오처럼 지위가 높고 훌륭한 사람과의 사귀는 빠를수록 좋고 그 시기를 놓치면 흉하다는 의미이다.

상전에서는 ‘비길’을 ‘비보야 하순종야’(比輔也 下順從也)라 해 ‘비는 아랫사람이 위사람을 돕는 것이요 순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구오의 강건중정의 덕을 ‘이강중야’(以剛中也)라고 했으며 늦게 오는 사람은 흉한 것(後夫凶)은 ‘그 도가 공색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기도공야’(其道窮也)라고 설명했다.

흥하고 공색한 것은 초·이·삼·사효가 음호로서 힘이 약하고 이들은 구오의 강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편안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비(比)의 때에 굳이 친하게 지내지 않고 사람을 멀리하면서 본인이 고집으로 불손(不遜)해 고립을 자초하면, 점점 그 사람의 주위를 좁게 하는 것이고 있는 자리도 잃게 되어 흉하다는 것을 역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비괘에서 구오와 오음의 관계는 땅과 물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친비의 상으로 이는 군위와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상전에서 이를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比)이니 현명한 왕은 나라를 세우고 제후와 친해 백성을 이롭게 한다(地上有水 比, 先王以建萬國親諸侯)’라고 말한다.

잠사에서 비괘(比卦)를 얻으면, 남들과 친분을 두고 친화 협력하면 의지가 될 사람을 얻고 길한 때이다. 만일 독립하려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비괘를 만난 당자는 먼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야 한다.

괘상으로 말하면 구오(九五)의 양을 오음(五陰)이 모두 좋아하고 구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음들이 서

## 지역서점 팝업스토어 ‘광주 올해의 책 도서전’

14일까지 전일빌딩 245 1층

책의 사회적 의미와 서점의 큐레이션 가치를 한 자리에 모아낸 행사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14일까지 전일빌딩 245 1층에서 ‘지역서점 팝업스토어 - 2025 광주 올해의 책 도서전’을 개최한다. 이번 도서전은 ‘2025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계기로 기획됐다. 지역 서점이 행사의 주제로 참여하고 전국 독립서점이 연대하는 형식으로 꾸며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관 서점 ‘책과생활’과 ‘예지책방’은 광주문화재단의 행정지원 아래 서점 현장의 고민과 감각을 중심에 두고 준비했다. 두 서점은 전국 32개 독립서점을 직접 섭외해 각 책방지기가 고른 도서와 문장을 모아 하나의 도서전으로 엮었다. 도서전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책이 놓인 시대적 맥락과 서점 큐레이션의 의미를 비춘다. 행사는 ▲전시 ▲체험 ▲마켓으로 구성돼 무인 도서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시’에서는 참여 서점이 선정한 ‘올해의 책’ 속 핵심 문장을 엮서 형태로 소개한다. 관람객은 서점 명과 페이지 수만을 단서로 책을 유추하며 문장 자체의 울림을 경험한다. ‘체험’ 존에서는 스탬프 투어가 마련됐다. 책 속 문장과 단어 스탬프를 조합해 나만의 문장을 만들고 업서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마켓’에서는 서점 추천 도서 60여 종과 자체 제작 굿즈를 판매한다. 책방지기가 작성한 추천사 책갈피가 함께 제공돼 관람객의 선택을 돕는다. 현재 유통되는 도서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과 주관 서점(책과생활, 예지책방) SNS에서 확인. /최명진 기자